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 심순화 카타리나 -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http://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https://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cok.org@gmail.com](mailto:stfrancisco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 교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h@gmail.com](mailto:seoulsoh@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ㄱ,3ㄷㄹ-4,5-6(◎ 2참조 또는 3ㄷㄹ)



(후렴)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 - 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제 2 독서] ..... 로마 10,9 -18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씀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기를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흡수를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마태 28, 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 16-20

[성가안내]

- 입당성가 [450] 만방에 나아가서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76] 믿음 소망 사랑
- 파견성가 [63] 온세상에 전파하리

##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부 기자 헬레나 강 견대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임 인순 모니카/이철순 김 인순 마리아 이 종란 크리스티나	이 정현 헬레나 울릿다 김 경련 이 기원 스테파노 가족 한 안나 데레사
생미사	봉헌
이 정근 미카엘/이 형규 리오 조 남록 미카엘/조 성자 데레사 박 은희/유 요국 (영.육 건강을 위해) 최 아네스 유 금순 (건강 회복 위해) 이 중환 토마스 아퀴나스/이 정주 소화 데레사 이 선민 김 진열 가롤로 신부	이 정현 헬레나 이 흥규 요한 양 미숙 마리아 최 병남 미카엘 김 헤미 레오나 안 영옥 베네딕다 김 미화 마리클레어 풍물팀 "신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0월24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조규진 아네스	조규진 아네스	김영숙 카타리나	한창희 바오로	권민호 바오로
10월31일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박신희 리나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양미숙 마리아	장동엽 에드문드	장동환 헨리코

- 10월 16일 (토) '묵주기도'에 동참해 주신 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917. 10. 13.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4주년 기념 묵주의 기도



- 미사 시간 전에 묵주의 기도 1단 씩 바칩니다.  
10월 묵주의 기도 성월을 맞아 매 주일 미사 전에 '영광의 신비' 1단씩 마칩니다. (10/24-4단, 10/31-5단)

- 사목 협의회 10월 24일 월례회의 있습니다.  
- 장 소 : 교육관 2C      - 시 간 : 미사 후  
- 대 상 : 모든 사목위원들

- 풍물패 '신명' 오늘, 10/24 연습있습니다. 오후 2시 교육관 3A

- 2021년 제 25차 성령대회  
- 장 소 : 메이플우드 성당  
- 일 시 : 10월29(금) 오전9시-오후5시  
          10월30(토) 오전9시-오후5시  
- 참가티켓 : \$20  
- 문 의 : 646-961-1639

- 꾸르실료 교육 안내입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21. 11. 11(목) ~ 11. 14(일)  
- 참가자 : 김 이 엘리사벳, 장혜윤 크리스티나  
- 봉사자 : 김 미화 마리 끌레어

- 11월 2일(화) 오전 7시 위령의 날 미사가 미국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29일까지 미국 본당 website 에 접속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신 후 참석 할 수 있습니다.

<https://stfrancisnyc.org/allsouls/>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일단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올드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구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2C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0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6:30pm~8:00pm	교육관 2C

◆ **묵 주 기 도 성 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김동희(헬레나)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이정주(소화데레사) |
| 김용기(요셉)       | 정창동(폴리나)   |
| 지군자(스테파니)     | 고종호(마태오)   |
| 홍봉운(바오로)      | 진정은(마리아)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노의선(프란치스코) |
| 이병국 (요한)      | 이진자(세실리아)  |

[2021년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WEST 8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 오늘의 복음 묵상

(마태 28,16-20)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지향하며 미사를 봉헌하면서 선교사들과 그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모금하고 기도합니다.

마태오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선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1독서 이사야서는 '영원한 평화'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환시로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높이 솟은 산에 주님의 집이 서 있고, 그곳으로 모든 민족이 모여들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배워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만군의 주님의 힘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제2독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유대인 이건, 그리스인이건, 구별없이 모두 구원된다고 말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선포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 면 구원된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알려서 그들이 믿고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미사 끝에 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며 신자들을 파견합니다.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 전교의 달, 전교하는 교회

- 윌리엄 그림 신부 -

10월은 전교의 달이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교의 달은 10월 24일 전교주일 2차 헌금 외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전교의 달을 특별히 기념하는 교구나 본당은 드물다. 그나마 전교주일 2차 헌금을 모으는 것이 전교의 달 활동의 전부일 것이다.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주일에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날(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낸다)은 멋진 날. 적어도 꽃가게 주인들에게는 대목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날 하루만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한다면, 더 이상 가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전교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 년에 하루 혹은 한 달만 전교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 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교회는 그저 특정한 풍습을 가진 조직에 불과하게 된다. 교회에게 전교가 그저 풍습이 돼서는 안 된다. 전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교에는 의식과 교의, 법, 특정 기념일, 지도자들이 있다.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에는 하나가 더 있다. 교회에는 전교라고 불리는 복음화의 사명이 있다.

하지만 전교라는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전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의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어떤 중요한 답을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요한 3,16-17)

하느님과 아들의 관계는 보내심, 바로 전교다. 성령 또한 이 보내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느님과 세상의 삼위일체적 관계는 바로 보내심, 전교라고 풀이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강생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의 강생은 하느님의 끝없는 전교 활동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 강생을 지속시킨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27)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전교와 묶여 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삼위일체의 삶인 전교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흥미를 끌기도 하며 도전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이 설명이 신학적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낸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소명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느님 전교 사명의 육화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개종시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라는 새로운 감각으로 삶을 계속하라고 당부 하셨다. 개종시키고, 사람들을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모으는 일은 교회에 집착한 내부지향적인 행동이다. 예수님은 복음화시키셨다. 이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과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복음화 활동에 동참할 사람들만 부르셨다.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우리의 소명은 이것과 같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받은 것과 같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현존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는 특정 계층이나 부류,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선교사나 사제, 수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

복음화는 하느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대상이다. 우리는 말과 행동, 봉사, 전례를 통해 하느님 나라는 진실하며 사랑과 정의, 평화, 용서, 기쁨, 영원한 삶이 진실로 가능하다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잘 해오지 못했다. 짐작건대 여러분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을 잇기로 마음먹은 초창기 제자들과 같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묻히심을 겪고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절망하며 겁을 먹었고, 예수님을 배신했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제자들보다 더 나쁘다고 믿고 싶지 않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느님도 실패한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실패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월은 전교의 달이다. 3월, 5월, 6월 아닌 다른 모든 달도 전교의 달이다.